

# “어민 후계자 키워주는 강진 어촌으로 오세요”

전남 귀어귀촌지원센터 우수귀어인 <3> 강진군 속마어촌계 정중흔씨

### 텃새 없는 마을에 반해 3년 전 정착... 낙지·장어 통발 어업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바이씨’ 등 매출 다각화 ‘억대 매출’

“제 아내와 함께 인터뷰해도 될까요?”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선정 ‘우수 귀어인’에 선정된 정중흔(42·강진군 속마어촌계)씨는 수상의 공을 맺은 뒤 세 살배기 딸과 올해 태어난 아들 넷을 데리고 아내 소연(24)씨에게 둘러싸고 첫 마디를 뱉어 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귀어한 강진 속마마을에서 창업과 결혼, 출산 세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았다. 여수에서 나온 정씨는 우연히 귀어한 강진 바다마을이 행운의 기회를 줬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씨는 제2의 고향인 강진 속마마을에서 백년가약을 맺은 뒤 세 살배기 딸과 올해 태어난 아들 넷 가족을 꾸렸다. 그는 서울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직장 다니며 20~30대 시절을 보냈다. 몸과 마음이 머무른 곳을 찾다가 ‘제수에서 상경하는 말이 쉬어간다’는 속마(宿馬)마을에 반해 이곳에 정착했다.

강진은 말과 관련한 지명이 유달리 많다. 정씨는 말 그대로 혈혈단신 강진에 동지를 틀었다. 그가 제대로 된 ‘강진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 이는 김효선(56) 속마어촌계장이었다.

정씨는 “강진 속마어촌계는 텃새가 없기로 유명하다”며 “100명 남짓 주민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어민 후계자를 키우려는 포용력과 친화력은 전남 1등”이라고 마을 자랑을 했다.

정씨는 24명이 어촌계원으로 활동하는 속마어촌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속마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감사로 활동하며 마을의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솔선수범하고 있다.

정씨는 2.5t 배를 마련하며 통발 어업인의 꿈에 한 걸음 내디뎠다. 정책자금인 ‘어업인 후계자 자금’을 대출 받으며 1억원의 종자돈을 마련했다. 2%



대 저금리와 3년 거치 7년 상환이 적용됐다. 그는 어촌계 선배들로부터 부단히 배우며 강진

앞바다에서 낙지, 문어, 장어를 잡고 있다. 첫 소득을 올린 지난 2020년 9000만원 매출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억2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올해는 위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바이씨(BuySea)’를 통한 판로 다각화를 꾀하면서 매출 1억5000만원을 내다보고 있다.

‘바이씨’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이다. 2020년 11월부터 전남 지역 어촌계 직거래망을 통해 운영해 수수료와 운임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어촌계와 소비자 간 직거래 판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정씨와 속마 주민들이 함께 만든 속마협동조합은 앞으로 ‘바이씨’ 쇼핑몰에 수산물과 조리식품 등을 내놓으며 마을 경제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은 강진 속마어촌계가 더 잘 사는 마을로 성장할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국적인 아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거듭나고, 네 가족이 함께 살 새집이 완공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준 강진 속마마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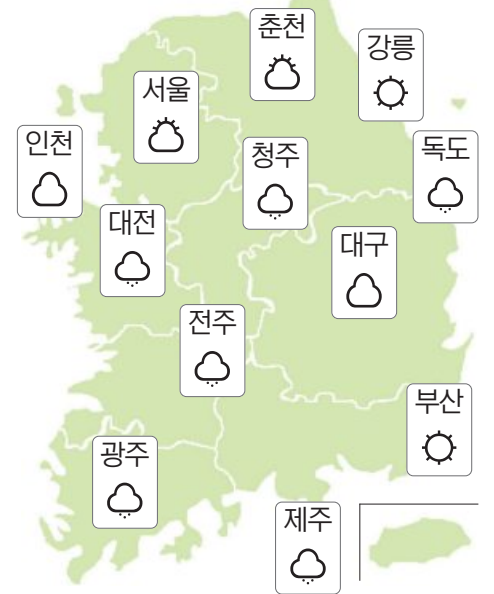
해돋이	07:38	달뜨기	07:24
해질	17:25	달짐	17:00

## 하이트 크리스마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매우 추겠다.

광주	눈	-7/-2	보성	눈	-7/-2
목포	눈	-4/-1	순천	눈	-7/0
여수	눈	-5/0	영광	눈	-7/-2
나주	눈	-7/-1	진도	눈	-4/1
완도	눈	-3/1	전주	눈	-9/-3
구례	눈	-8/-2	군산	눈	-8/-2
강진	눈	-5/-1	남원	눈	-10/-4
해남	눈	-5/0	혁신도	눈	-3/1
장성	눈	-7/-2			

## ◇ 전국 날씨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2.0~4.0	2.0~4.0	2.0~4.0	2.0~4.0
	면바다(북)	3.0~5.0	3.0~5.0	3.0~5.0	3.0~5.0
	면바다(남)	3.0~5.0	3.0~5.0	3.0~5.0	3.0~5.0
남해서부	앞바다	1.5~3.5	1.5~3.5	1.5~3.5	1.5~3.5
	면바다(서)	3.0~5.0	3.0~5.0	3.0~5.0	3.0~5.0
	면바다(동)	2.0~4.0	2.0~4.0	2.0~4.0	2.0~4.0

##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6:48	01:17
여수	19:38	14:14	
	02:17	09:07	
	15:13	21:05	

## ◇ 생활지수

감기	천식	미세먼지
경고	위험	좋음

## ◇ 주간 날씨

24(토)	25(일)	26(월)
-8/0	-6/4	-4/4
27(화)	28(수)	29(목)
-5/5	-3/3	-3/4

☎ 010-9790-8237



## 바람 의료복지회-화순전남대병원 업무 협약

바람(HOPE)의료복지회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인 호스피스 환자와 소아암 환자를 위해 물품을 전달했다.

바람(HOPE)의료복지회(회장 임영창 화순만안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정용연 병원장 등 병원 보직자들과 임영창 바람의료복지회장 등 복지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관리 ▲호스피스 대상자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임영창 바람의료복지회장은 “화순전남대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의미 있고 뜻있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화순전남대병원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으뜸 되는 암센터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람(HOPE)의료복지회는 ‘2022년 마음채우기 행사’로 호스피스 환자와 소아암 환자를, 그리고 외상환자들에게 제공할 바다로선, 무릎담요, 온열찜질기, 텀블러, 블루투스 헤드셋(소아암 환자용) 등 6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제일요양병원(지승규 원장), 그리고 화순군립요양병원(범희승 원장)에 전달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천사무료급식소 한국나눔연맹 1억 상당 물품 기탁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한국나눔연맹이 복구에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복구 우선근린공원인근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한국나눔연맹은 최근 복구청을 방문해 김치, 쌀, 라면, 마스크 등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복구청이 진행중인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광주시 복구청 제공>

## 인사

- ◆광주 광산구
  - ◇4급 승진
    - ▲자치교육국장 서상현

- ◇5급 승진의결
  -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채동훈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은경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박영오

- ◇5급 전보
  - ▲홍보실장 유용규 ▲문화예술과장 공경희 ▲관광육성과장 최문천 ▲여성아동과장 박경옥 ▲장애인복지과장 이공선 ▲외국인주민과장 김양숙 ▲청소년정책과장 정찬영 ▲민원법무과장 정석원 ▲기후환경과장 강미금 ▲시민소통과장 조남현 ▲데이터정보과장 김정미 ▲교육도서관과장 조선영 ▲건강증진과장 박옥준 ▲송정2동장 최윤정 ▲첨단1동장 박미숙 ▲첨단2동장 조경두 ▲복지정책과장 주점숙 ▲통합돌봄과장 나성숙 ▲복지

- 지원과장 최찬순 ▲동곡동장 홍선화 ▲명품길추진단장 조지현 ▲도시계획과장 오승민 ▲도시재생과장 전상희 ▲건설과장 김동명 ▲교통지도과장 김정모

- ◆한국농어촌공사
  - ▲특정직 임용 ▲농어촌연구원장 서상기
  - ▲부서장 인사발령
    - ▲안전경영실장 고광돈 ▲기획관리실장 김종성 ▲자산재무처장 박병천 ▲비상보안실장 박재홍 ▲대단위사업처장 전용주 ▲보상사업처장 서기수 ▲수자원관리처장 최현수 ▲스마트그린처장 박찬희 ▲환경지질처장 전병철 ▲농촌공간개발처장 이희익 ▲농지은행처장 권익현 ▲기금관리처장 권진식 ▲총무인사처장 이민수 ▲감사실장 양정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승현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센터장 박홍식 ▲전북지역본부장 이정문 ▲전남지역본부장 조영호 ▲제주지역본부장 김동철 ▲천주산사업단장 강석만 ▲영산강사업단장 운영일 ▲토지개발사업단장 장양수 ▲안전전단본부 진단기획실장 김현수

## 조선대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사진)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27일까지이며, 이번 인증으로 조선대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재차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4주기 인증조사는 코로나19 등 감염

병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환자안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감염관리 시스템 ▲환자 안전활동 시스템 ▲시설 및 환경안전 ▲의약품관리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관리 등 병원 전 부문에 걸쳐 세밀하고 엄격한 평가가 이뤄졌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0년, 처음 획득한 1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이번에 획득한 4주기 인증까지 더욱 강화된 기준의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3일(음 12월 1일 庚戌)

## 알림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부음

▲박혁주씨 별세, 박형관(상무병원장)·형은·형아씨 부친상, 송중숙(광주은행장)·최상우(동원기술투자 대표)씨 장인상, 한선(호남대 교수)씨 시부상=발인 24일 오전 9시 30분 광주VIP장례타운 201호실 062-521-4444.

36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48년생 주변인의 그 어떤 참견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 주권을 가져라. 60년생 김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어라. 72년생 상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야 의미가 있느니라. 84년생 전환점을 맞을 갈림길에 서 있다. 96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행운의 숫자 : 43, 53.

37년생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니라. 49년생 확실하게 분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61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 주리라. 73년생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85년생 현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97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2, 60.

38년생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오히려 유용하리라. 50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62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 74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86년생 기대에는 어긋나겠지만 최소한의 결실은 있을 것이다. 98년생 도전해 볼 만하다. 행운의 숫자 : 10, 52.

39년생 의문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 51년생 너 앞서지 않았는데 실패배 일이다. 63년생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속게 되는 우를 반복하지 말자. 75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느니라. 87년생 가져 판국에서 진짜가 파문하는 애석함이 보인다. 99년생 가슴에만 묻어 두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5, 71.

40년생 결함이 보이지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52년생 확실한 조짐이 보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64년생 현재점이 많으니 재설계해야 할 처지고 볼 수 있다. 76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88년생 계획대로 임해야 알찬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00년생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16, 77.

41년생 긴요한 볼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53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겠다. 65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77년생 팔이 들어 굶지 내 굶지는 않는 법이다. 89년생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01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었다. 행운의 숫자 : 08, 51.

42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54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익이다. 66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78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자. 90년생 밝은 지대로서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02년생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하자. 행운의 숫자 : 28, 92.

43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전도양양하리라. 55년생 있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67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79년생 잠시 흐름세를 보이다가 소강상태에 빠지는 형태이다. 91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할 것이니 함시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03년생 전문성의 확보만이 성사로 이끄는 구간이 된 다. 행운의 숫자 : 35, 98.

44년생 이제 헛수고는 그만하는 것이 나으니 미련을 버려라. 56년생 약자처럼 고통을 떠돌고 대고 있는 국세로다. 68년생 밝은 웃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80년생 공명력이 어서 더불어 처리하게 된다. 92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뒤떨어질 길 여지가 있다. 04년생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양상이다. 행운의 숫자 : 13, 83.

33년생 순발력 있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45년생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57년생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겠다. 69년생 동쪽으로 진행했을 때 능률이 극대화될 것이니라. 81년생 남이 들을지도 모르니 조용히 얘기해야겠다. 93년생 충분한 눈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67.

34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라. 46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 된다. 58년생 접근성이 좋아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니라. 70년생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릴 수 있으니 차분해야 할 것이다. 82년생 김새가 보였을 때 즉각 대처하는 것이 낫다. 94년생 본격적으로 임하기 이전에 검증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0, 61.

35년생 고목이 봄을 만나서 싹을 트일 수 있다. 47년생 함께하는 이와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59년생 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보이니 강우에 대비해야겠다. 71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 뒤야만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 83년생 필히 경험자나 안 내자와 함께하라. 95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41, 91.